

호남, MEG 분리매각 요구하면...

공정거래위, 불허 가능성 높아 ... 승인해도 분리매각 요구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LG화학-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의 현대석유화학 인수를 불허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 조건부로 허가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과점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LG화학-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은 현대석유화학을 통째로 인수하면 에틸렌, 부타디엔, SM(Styrene Monomer), EG(Ethylene Glycol),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PP(Polypropylene) 등 상당수 석유화학품목에서 국내 시장점유율(생산능력 기준) 1위로 올라서게 된다.

특히, 에틸렌 및 PP는 시장점유율 40%를 넘게 되고, MEG는 수입품을 제외하면 점유율이 80% 이상으로 올라간다. 또 LDPE(Low-Density Polyethylene)와 합성고무는 2위가 되지만 1위와 합친 시장점유율이 80% 이상으로 상승해 국내시장을 양분하는 과점상태가 된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인수·합병으로 인해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추정돼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에틸렌, 부타디엔, SM, EG, 합성고무 등 대부분의 품목이 독과점 규제대상이 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심화를 이유로 현대석유화학 인수를 불허하거나 최소한 MEG 등 2-3개 석유화학제품의 제3자 매각을 조건으로 허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LG-호남 컨소시엄의 시장점유율 비교

(단위: %)

구 분	컨소시엄	1-3위	비 고	구 분	컨소시엄	1-3위	비 고
Ethylene	45.31	81.95	독과점	LDPE	47.78	100.00	독과점
Propylene	33.61	65.99		HDPE	41.65	81.23	독과점
Butadiene	34.87	64.72		PP	34.71	63.88	
Benzene	23.43	56.47		SBR	25.00	100.00	
SM	31.30	73.48	독과점	BR	18.35	100.00	
EG	86.98	100.00	독과점	NBR	44.44	100.00	

특히, 현대석유화학이 2002년 흑자를 내는 등 경영상태가 상당히 개선된 상태여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5/06>